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2. 8 (수)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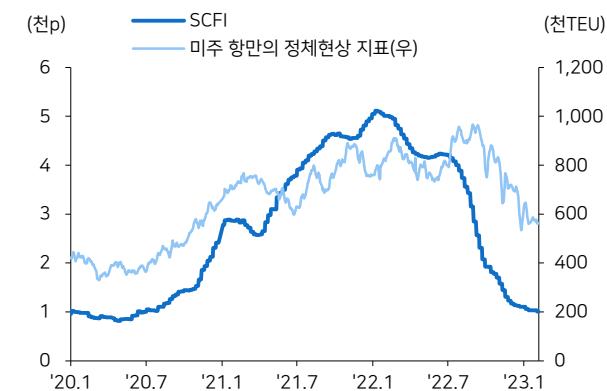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601.0p(-2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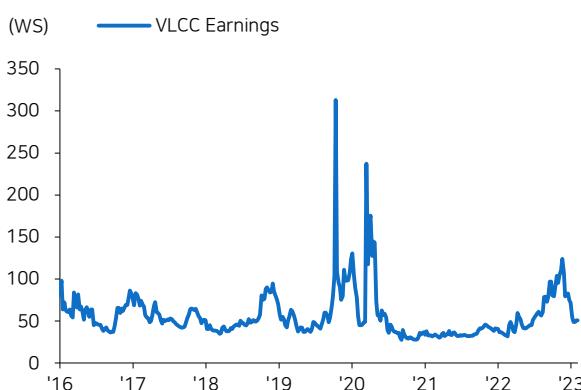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1,006.9p(-22.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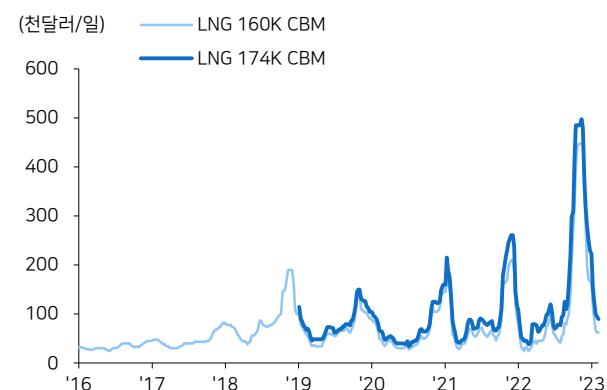


## VLCC Spot Rate

50.7p(-0.1p WoW)



## LNG Spot 운임

62.5p(+0.0p WoW)  
90.0p(-4.8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3.1p(+0.4p WoW)  
150.2p(-0.1p WoW)

## 항공시장 지표

275.5p(-5.2p DoD)  
106.1p(-1.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방역당국,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검토

방역당국이 1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예정됐던 2월말에서 앞당겨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 내 COVID-19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언급됨. (조선Biz)

### 강석훈 산은 회장, 지난달 벨기에 갔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직접 쟁겨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월 중순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방문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와 관련된 현안을 직접 쟁기 것으로 보도됨. EU 경쟁당국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나, 2월 17일 EU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Biz)

### CJ대한통운 2천억원 모집 회사채 수요예측에 1.5조원 몰려

CJ대한통운이 2천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1조 4,9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CJ대한통운이 제시한 금리밴드 상단은 +40bp, 하단은 -40bp로 알려짐. 수요예측 결과 신고 기준 2년물은 -26bp, 3년물은 -33bp, 5년물은 -60bp에서 물량을 모두 채웠고, 수요예측이 크게 흥행하며 CJ대한통운은 최대 4천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언급됨. 이번에 조달한 자금 전액은 오는 4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에 활용된다고 알려짐. (연합인포맥스)

### Japan's Nissen Kaiun doubles up on product tanker orders

일본 Nissen Kaiun이 1.81억달러규모 MR탱커 4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50,000DWT급 전통연료선박으로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될 예정임. 지난 7월 발주한 4척대비 6% 인상된 척당 4,530억달러에 계약했다고 언급됨. 2025년 하반기 인도될 예정임. 지난 7월에 발주된 4척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됨. 선박브로커에 따르면 건조되는 야드에 따라 건조비용이 달라 선가가 상이하다고 언급됨. (Tradewinds)

### Product tankers set for 'gradual recovery' as sector assesses EU ban

PC선 운임이 2023년 급락 이후 EU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제재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MR탱커 운임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로 12개월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전주대비 50% 상승해 31,600달러/일을 기록했다고 언급됨. 발틱거래소 Clean tanker 인덱스는 2월초부터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BP expects its LNG supply to expand to 30 mtpa by 2030

BP가 3년 뒤인 2030년까지 LNG공급량을 30% 확대된 30MTPA를 생산할 것으로 보도됨. 신규 공급분은 모잠비크 Coral FLNG, Tortue FLNG, Tangguh LNG프로젝트 Train 3와 미국 Venture Global 터미널에서 생산될 것으로 알려짐. 한편, 바이오가스 비중도 2030년까지 6배 증가할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